

2023년 10월에 드리는 아마존 떼페 선교편지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욥33:29-30)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현재 아마존은 건기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파괴로 인해 아마존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역 18년 동안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가뭄으로 인해 강물이 다 말라 저희 떼페 선교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위급 재난상황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생필품을 실어나르는 여객선들과 화물선들이 가뭄으로 인해 부두에 들어오지를 못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든 물가는 폭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도 어려움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지교회가 있는 인디오 마을을 오고가는 여객선들도 멈춘 상태로 밀림 깊숙히 사는 인디오 마을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디오 마을 사역자인 빅톨도 다시 우기가 되어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는 밀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가 없는 가운데 현지 사역자인 호비와 빅톨이 함께 선교지 교회를 잘 돌보며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교회 지도자로 훈련을 받으며 브라질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선교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생일 잔치와 아버지 날 행사를 하고 어린이 날 전도초청 잔치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해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번역에 이어 8월부터 구약성경 인디오 언어인 아라우아어로의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번역을 위해 후원할 교회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작업이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안식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선교지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원 교회들과 동역자들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번역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번역 작업이 순조롭게 마치면 성서공회를 통해 신구약 합본으로 출판을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인디오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는 아내가 하람이와 함께 아마존 떼페 선교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람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식탁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임플란트 치료와 아내인 김윤정 선교사 건강 회복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람이는 브라질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캐나다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좀 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아마존 떼페 선교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후원 교회들과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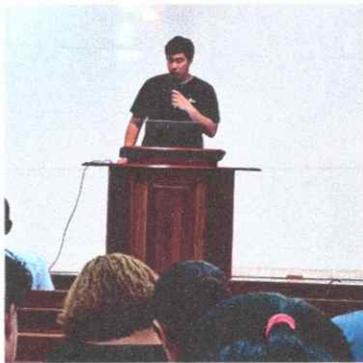
김영균, 김윤정 선교사 올림

아마존 떼페 선교지를 위한 기도제목

1. 아마존 주루아 강 줄기의 꾸마루 지역 인디오 마을의 마지하 쿨리나 부족들이 사는 척박하고 소외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2. 떼페 생명수 장로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여 아마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아마존 떼페 선교지에 계속 영적인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4. 선교사 가정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5. 마지하 쿨리나 부족 인디오 언어로 구약성경 번역 작업을 위한 후원교회와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6.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지 교회 가정들을 위해



아버지날 행사



안식년 선교지 방문



어린이 날 전도초청 잔치



주일학교 생일잔치



아마존 떼페 선교지 가뭄 상황

